

우즈베키스탄 사태진전 현황과 민주화 전망

1. 유혈사태에 대한 관심 고조

● 소요사태 지속

- 5월 13일 정부보안군의 무력진압으로 안디잔(Andijan)시의 유혈사태가 종료되는 듯 했으나 인근 코라수브(Korasuv)시로 시위가 확산되고, 수도인 타시켄트에서까지 간헐적 소요가 있었고 코라수브는 아직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.

● 민간인에 대한 발포에 비난여론 증가

- 5월 18일 우즈베크 정부, 삼엄한 언론통제와 현장접근 제한 속에 우즈베크 주재 외교관들에 사건현장을 공개하였으며, 불순한 무장봉기 진압과정에서 169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.
- 그러나 최소 500명 사망에 부상자도 수천 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비무장 민간인 무차별 살상에 대한 비난여론 증가하고 있음.
- 미 라이스 국무장관 정치개혁과 개방을 강하게 주문한데 이어, 영국과 EU는 현장접근과 진상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함. 또, UN 고등인권위원회도 이번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.

● 소요사태 배경

- 이번 사태는 대외적으로는 연이은 시민혁명으로 주변 CIS국가들의 독재정권이 붕괴되고, 내부적으로 카리모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시점에 발생하여 우즈베크 정국의 중요한 변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.

- 우즈벡 정부는 일관되게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계획적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, 이번 소요사태는 이슬람 극단주의와는 무관하며 경제적 동기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태라는 분석이 우세함.
- 특히, '카리모프 대통령 하야'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어 우즈벡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.

2. 우즈벡의 민주화 가능성 분석

● 국내 정치환경, 민주화된 CIS국가들보다 열악

-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 : 강력한 야당지도자와 반정부 성향의 학생 및 지식인 계층 존재
 - * 그루지아: Mikhail Saakashvili, 우크라이나: Viktor Yushchenko
- 키르기즈 : 덜 억압적인 정치체제 유지로 인해 다소 우발적인 시민혁명을 통한 정권교체 가능했음

→ 카리모프의 강권통치와 미성숙한 정치체제로 강력한 저항세력 부재 등 민주화역량 부족

● 국제적 압박 미온적

- 러시아·중국 : 극단적 이슬람세력 득세를 원치 않으며, 우즈벡 정부 지지입장 견지
- 미국 : 강·온의 애매한 입장 견지
 - 우즈벡의 열악한 인권상황 비판 : 우즈벡에 대한 경제지원 축소 등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보여 왔음
 - 아프간과 중동지역에서 對테러전쟁 수행을 위해 군사기지 제공 등 우즈벡 정부의 협조가 긴요함에 따라 압박수위는 매우 제한적임

→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들 우즈벡의 정치환경에 비판적이나, 미·러·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우즈벡의 정치개혁 유도를 위한 국제적 압박효과 크지 않음

● 단기적으로 민주화 도미노 가능성 크지 않아

- 카리모프 정권의 강력한 정국 장악력과 미온적인 강대국의 태도 등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우즈베크에 민주화가 실현될 가능성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임.

3. 중장기적 변화 전망

● 반정부소요 계속될 듯

- 이번 소요사태로 카리모프의 지도력이 상당한 상처를 받았음
- 낙후된 정치체제와 경제실정에서 비롯된 국민불만 해소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, 정부의 강경진압에도 반정부소요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임.

● 정권 내부로부터의 붕괴 가능성 배제 못해

- 반정부소요가 계속된다면 이에 대해 끊임없는 강경진압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함.
- 민주화역량 부족으로 시민혁명에 의한 변혁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,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권세력 내의 지도력 교체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.
 - * 집권세력 Samarkand파벌과 Tashkent파벌의 양대세력으로 구성됨

● 카리모프 대안 부재로 정치혼란 지속될 가능성 높아

- 수권세력이 없는 가운데 정치적 이해에 따른 이합집산으로 바람직한 정치개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장기간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 높음.